



▲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박진배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지역과 60년, 세계로 100년’ 우리 대학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개교 60주년 기념식

지난 2일,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우리 대학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이 개최됐다.

1부 기념 예배는 전주개발전목회자협의회 전임회장 추이엽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으며,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이 ‘하나님의 약속: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2부 기념식은 박진배 총장의 기념사로 막을 열었다. ‘학생성공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30을 선포한 박진배 총장은 “기독교명문 사학으로 전북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 또한, 한 세대를 거쳐 지역과 함께해왔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VISION 2030으로 나아갈 대학의 목표가 선포됐다. 새로운 비전인 ‘학생성공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대학’을 이루기 위한 학교의 전략방향은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 ‘지산학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학협력’,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대학경영 고도화’다. 4대 전략방향을 바탕으로 12대 전략과제, 35개 세부과제와 95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한 우리 대학의 향후 발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념사 이후에는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표창이 이어졌다. 연공상, 우수교육자상, 수퍼스타직원상, 수퍼스타학생상을 비롯해 공로상 및 감사패를 총 72명에게 수여했다. 행사에 이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이끈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된 최영일 순창군수, 윤희태 완주군수, 이학수 정읍시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수퍼스타 등재식’이 이어졌다.

이날 대학 곳곳에서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기념식 외에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명예박사 수여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가치 공유 프로그램에는 대외협력홍보실을 비롯한 교내 기관이 지역 플리마켓 등의 부스를 운영해 재학생의 관심과 호응을 끌었다.

우리 대학은 그간의 성과에 더해 학생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개교 60주년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학사랑발전기금은 대학의 발전과 세계로 뻗어나갈 학생 지원을 위한 모금으로, 현재까지 7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한편, 1964년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 학교는 지난 60년 동안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2023년에는 LINC3.0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LIFE사업(광역형, 고도화형),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지역품은대학-중고교연계인재육성사업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 3유형 국고사업에 선정되어 약 16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전국 15개 대학만이 S등급을 받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1유형에서 S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처럼 꾸준한 과제 수행과 사업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대학의 미래를 기대한다.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우리 대학, 고교교육 기여대학 17년 연속 선정

지난 8일, 우리 대학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올해 3주기(2022년~2024년)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교육부는 사업 참여 중인 91개 대학의 지난 2022년~2023년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이번 단계평가를 통과해 2024년 계속사업 참여대학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유일의 17년 연속 선정 대학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대학은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 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 연계성 및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입학전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진로·진학박람회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성 계발과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경계 없는 문화의 별빛, 도서관 개방 행사 개최



▲ 도서관 개방 행사에서 '도서관 플리마켓'과 '책사랑 도서교환전'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다.(사진:김예은 기자)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4일간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지역주민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교 60주년 기념 도서관 개방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사전 신청과 행사 당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했다.

도서관 입구에서는 '북적북적 책사랑 도서교환전'과 '북적북적 플리마켓'이 열렸다. '북적북적 플리마켓'과 '북적북적 책사랑 도서교환전'에서는 물건을 기증해 새로운 책과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 공방에서 만든 상품들도 함께 구경할 수 있었다.

도서관 2층 로비에서는 '도서관 한 바퀴', '마법도서관 탐험', '모루모루 모여라'를 진행했다. '도서관 한 바퀴'는 도서관 시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각마다 도서관 입구에서부터 도서관 내 여러 공간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마법도서관 탐험'은 '리얼월드'라는 앱을 통해 마법도서관으로 변한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는 활동이다. 5월 2일, 도서관 로비에서 진행된 '모루모루 모여라'는 철사에 털실을 감아 만든 끈으로 다양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활동이었다.

도서관 3층에서는 '올데이 영화상영회', 'VR 게임 배틀', '하늘정원 독서 캠핑: 별, 바람 그리고 책'을 즐길 수 있었다. '올데이 영화상영회'는 해치 라운지 옆 소극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열두 작품을 상영했다. 'VR 게임 배틀'은 해치 라운지 VR 체험 공간에서 진행했으며,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 상품을 수여했다. '하늘정원 독서 캠핑: 별, 바람 그리고 책'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하늘정원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였다.

우리 대학 도서관은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영화 감상이나 VR 체험 및 3D 프린터 이용은 언제나 도서관 앱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육십 년의 보고, 천 년의 미를 품다' 개교 60주년 기념 박물관 특별전 개최



▲ 박물관 특별전에서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배 총장과 주요 인사의 모습이다.(사진: 권주의 기자)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전 '한지의 여정: 전통에서 현대까지'가 5월 1일부터 6월 26일 까지 우리 대학 박물관 3층 기획전시관에서 개최된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한지의 아름다움과 가능성' 및 '한지의 우수성과 활용성'이 주제인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대학 문화산업대학원 한지산업학과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작가 등 총 2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특별전은 전통 한지 제조 기술과 현대 공예 기법을 융합시켜 제작한 한지 공예 및 설치 미술 작품과 기존 박물관 소장 한지 유물 전시가 주를 이뤘다.

이번 전시회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에 보내는 감사 표시의 일환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 작가의 공동 참여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박물관 실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이끄는 지역 발전'이라는 정책 과제에 맞춰 대학 내 구성원, 학생, 지역민과 함께하는 취지로 개교 60주년과 연계해 마련했다. 다양한 한지 공예품을 통해 한지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대학 내 구성원과 학생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대학 박물관은 1985년 개관 이래, 역사, 문화, 예술, 민속, 고고학 및 문화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전시하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연합 특별전 <선조들의 삶 속에 깃든 마음>'을, 2023년에는 '대학 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특별전 <K-heritage, 그리고 '한복''을 개최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 연구 성과 전시의 장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사회 문화 보급 및 교육 핵심 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한편, 올해 9월에는 개교 60주년 두 번째 특별전으로 호남기독교박물관 1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 건학 정신 등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인 '한 알의 밀알, 전주대학교에 떨어지다'가 개최될 예정이다.

| 이견우 기자 (virtuoso@jj.ac.kr)

"대학과 지역을 섬기는 교두보" JJ 선교센터 기공식 열려



▲ JJ선교센터 기공식에 참여한 박진배 총장과 주요 인사의 모습이다. (사진: 김예진 기자)

지난 2일, 스타센터 도서관 열람실 228호에서 선교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JJ선교센터는 "안정적인 채플 모임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재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지희 집사의 후원으로 도서관 열람실 공간에 그룹 채플실을 마련했다.

JJ선교센터는 소그룹 채플실 5개, 성품 채플 리더 및 학생 교제 공간 1개, 공간 관리 및 행정실 1개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계 방학 기간 중 리모델링 및 방음 작업을 거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JJ선교센터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실천적인 선교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선교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더욱 친근해지며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나가고 선교활동도 펼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JJ선교센터는 도서관 내 스터디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채플 수강생이 아닌 재학생에게도 소그룹 채플실 공간을 스터디룸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우리 대학을 빛낸 슈퍼스타 선정



▲ 슈퍼스타 등재식에 참여한 박진배 총장과 주요 인사의 모습이다. (사진: 오수현 기자)

지난 2일, 스타센터 유피아(U-Pia)에서 '슈퍼스타 등재식'이 개최됐다.

우리 대학 슈퍼스타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우리 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동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슈퍼스타가 선정되었고,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4명의 슈퍼스타를 새로 선정했다. 4명의 슈퍼스타는 유희태 완주군수(경영학과 박사 수료), 최영일 순창군수(경영학과 학사), 김정태 상공회의소 회장(행정학 박사), 이학수 정읍군수(금융보험 석사)이다.

박진배 총장은 “모두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의 명예를 높여 우리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자리는 선배님들이 이룬 업적과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영감과 이정표가 되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김정태 상공회의소 회장의 답사가 있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모교의 발전,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성실을 다하겠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과 전주대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대학교가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발전하는데 상공회의소도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개교 60주년 기념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있는 박진배 총장의 모습이다. (사진: 이수용 기자)

지난 2일, 우리 대학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당일 차종순 이사장, 박진배 총장을 비롯해 임정엽 총동문회장, 흥용 대학원장 등 많은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개교 60주년 기념 명예박사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두 인물을 선정했다.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립멘 서윤덕 대표이사와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은 자카르타국제대학교 정경택 총장이 바로 그들이다.

㈜립멘 서윤덕 대표이사는 선도유지와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산소흡수제, 가스 흡수제, 수분 흡수제 등을 제조 생산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출의 폭을 넓혀 국가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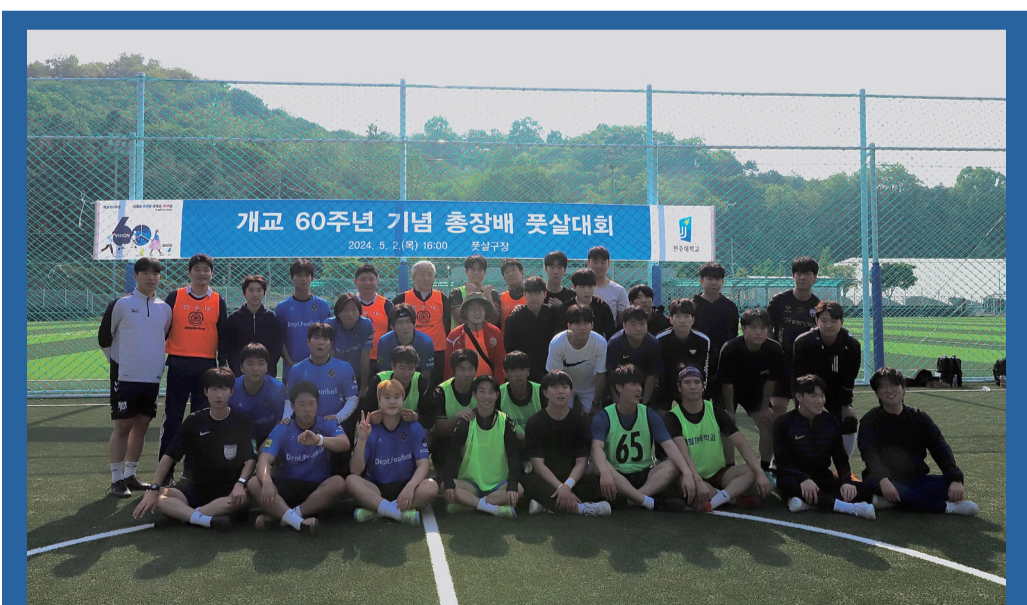
정경택 자카르타국제대학교 총장은 미국 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선교를 실천해왔다.

박진배 총장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를 위해 맡으신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두 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 두 분께 감사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윤덕 박사는 “전주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름에 응하겠다”라고 화답했으며, 정경택 박사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 선교를 통한 국제적 사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마경진 기자(alfpwngsh12@jj.ac.kr)

총장배 풋살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총장배 풋살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모습이다.(사진: 오수현 기자)

지난 2일, 총장배 풋살대회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대학 풋살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축구학과와 생활체육학과 재학생, 교수축구회, 직원 풋살팀이 참가했다. 첫 경기는 축구학과와 생활체육학과, 두 번째 경기는 교수 축구회와 직원 풋살팀으로 진행됐다.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개교 60주년 기념, 좋은 날을 맞이하여 풋살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좋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다치지 말고 즐겁게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알렸다.

축구학과 정경구 교수는 “교내에 풋살장이 없어 풋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아쉬움이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며 새롭게 생긴 풋살장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2024년 대학 U리그1에 우리 학교 축구부가 출전하고 있다. U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2008년부터 운영하는 대학 축구 리그로, 올해는 총 80개 팀이 U리그1(1부)과 U리그2(2부)로 나뉘어 참가한다. 1부 리그에는 1~4개의 권역에서 36개의 팀이, 2부 리그에는 5~10개의 권역에서 44개의 팀이 출전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축구부는 4월 5일, 안동과학대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 25일, 경일대와의 경기까지 총 15라운드 경기에 출전한다.

우리 대학 축구부는 5월 17일 기준, 4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전주대학교 축구부 서포터즈 블로그(<https://m.blog.naver.com/foot-b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경진 기자(alfpwngsh12@jj.ac.kr)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슈퍼스타직원상 수상자' 인터뷰

지난 2일, 개교 60주년 기념 예배 및 기념식에서 슈퍼스타직원상을 수여했다. 슈퍼스타직원상이란, 우리 대학에 5년 이상 재직된 직원 중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첫째, 직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둘째, 근무 성적 인정 및 학교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셋째,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뚜렷한 사람. 넷째,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입시충원율 등 대학 지표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이다.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 수상자는 제외하며 인원 또한 5명 내외로 제한한다. 이러한 슈퍼스타직원상은 매년 4월 중 공직심사위원회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에 본지는 이번 슈퍼스타직원상 수상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획처 기획예산실
임지훈 주임

Q. 먼저 슈퍼스타직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슈퍼스타직원상을 받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A. 제가 슈퍼스타직원상을 받은 것은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잘 수행하다 보니 처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슈퍼스타직원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직장인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은 책임감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면 업무가 지체되어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교직원이나 재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나요?

A. 전주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나 취업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스타센터 컴퓨터센터 동 2층에 위치한 진로취업지원실을,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은 국제교류원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은 LINC사업단이나 창업지원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졸업 전, 꼭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시기를 권합니다.

Q.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동료 교직원분들은 다들 저보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대학생활을 돌이켜 보면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대학생 때, 보다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게임이나 낮잠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대학 때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면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재학생들께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Q. 먼저 슈퍼스타직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슈퍼스타직원상을 받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A. 제가 근무하는 박물관은 크게 유물을 수집, 관리하고 수집된 유물로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와 연계한 교육을 개발하며 체험 진행, 학술연구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부속기관입니다. 또한 박물관에서 전시기획, 교육, 작품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예연구사로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대학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해 실무경력과 함께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학예연구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저 개인의 자격은 갖추면서 여러 전시와 많은 교육을 해왔지만 전시와 교육은 혼자하는 업무가 아니기에 서로 공조하고 직원들과 협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Q.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박물관이 2024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지문화산업학과와 함께 '한지의 여정: 전통에서 현대까지'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99번의 손질을 거친 뒤 100번째 손질을 통해 만들어 낸다'하여 '백지'라 부르는 한지를 주제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한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한지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다양한 한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토존과 함께 전시와 연계한 민화부채 체험 <소원을 말해봐>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함께 방문 바랍니다.

Q.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인생의 절반을 전주대학교에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 대학원, 박물관 근무까지 19년을 전주대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학예연구사라는 분야를 목표로 확신을 가지고 학예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자격을 갖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꾸준히 이행하다보면 결국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학예연구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박은지 행정원

Q. 먼저 수퍼스타직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퍼스타직원상을 받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A. 제가 수퍼스타직원상을 받았지만, 과연 ‘수퍼스타’라 불릴 만큼 우수한지에 대해 자문하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수퍼스타가 되기 위한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느 동료 교직원분들처럼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퍼스타직원’이라는 호칭이 민망할 만큼 대부분의 교직원이 학교와 재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애사심(애교심), 충성심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뀔수록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직원은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일하고 있기에 모두가 수퍼스타 직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Q. 전주대학교에 재직하며 겪은 특별한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당시에 학생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도 해본적이 없던 코로나19 업무를 맡았을 때 솔직히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등 정말 많은 기관과 일하며 우리 대학 구성원이 안전하도록, 또, 교내에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인 저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은 국가도 쉽게 대응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대학 환경이나 제도의 불편함,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익명의 전화로 영문도 모른 채 비난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기도 하고, 이유 없이 사과를 요구받기도 하는 등, 능력이 부족한 제가 감당하기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직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다시 고민해본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많은 학생들과 밤에도, 주말에도 연락을 취하며 도움을 주고 받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때로는 문자나 전화로, 편지로, 학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건네준 인사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하나씩 잊을 수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년여 간의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과 주고 받았던 따뜻한 연락들이 제게는 너무도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기간을 함께 이겨내 주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직원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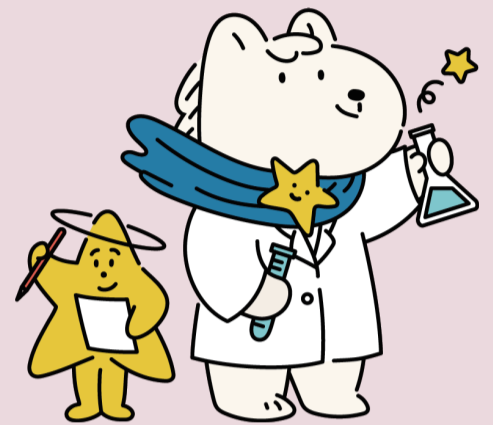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가끔은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를 위한 배려와 마음을 나눈다면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기에 제가 경험한 그 따뜻한 기억처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지속되기를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Q. 수퍼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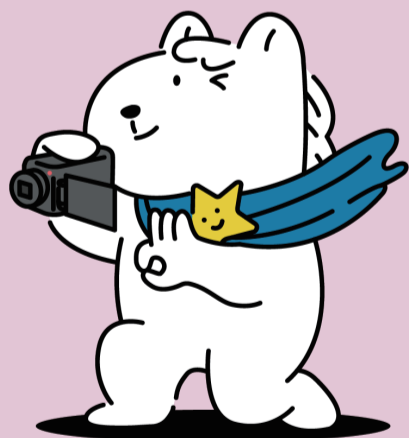
A.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을 잘 아실 텐데요. 전주대학교가 모교인 저도 2007년에 입학했지만, 전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퍼스타를 키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누구나 다 아는 셀럽, 대표, 전문가 등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수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전문성을 갖춘다면 수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직급)나 평판(명성), 많은 재산 등의 요소를 갖춘 수퍼스타도 중요하겠지만, 학생과 교직원으로서 본인 분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자신감을 갖고, 배려와 나눔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다른 방식의 수퍼스타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좋아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던 졸업생, 역사를 좋아해서 유적지를 방문하고 역시 의식을 전하던 재학생, 학우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많은 것을 즐기도록 봉사하는 학생회, 후배들이 전주대학교에 와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직원 등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그 분야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결국 수퍼스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함께 한 단계씩 성장해 가며 전주대학교 동문, 구성원에게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모교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저부터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혁신단 지역혁신지원실
김용승 계장



총장실 대외협력홍보실
강기웅 담당

Q. 먼저 수퍼스타직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퍼스타직원상을 받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A. 수퍼스타직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지만, 저 혼자 노력만으로 이룬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부서 동료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시며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은 제가 한 일보다는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전주대학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소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A. 전주대학교 캠퍼스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대학의 넓은 캠퍼스는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캠퍼스를 방문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봄을 맞이한 캠퍼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벚꽃길을 걷거나 스타정원에서 유채꽃 향기를 즐기며 쉴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을 바라보며,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린 캠퍼스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Q. 수퍼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도 아직 수퍼스타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모두 다 수퍼스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만학도인 조순희(미네르바학부, 21) 학생이 ‘수퍼스타학생상’을 수상하며 그 상금을 대학에 환원했다. 지금도 수퍼스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재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학교 교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며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마친다.

교내 시설 주요 개·보수 재학생 만족도 조사

“내 등록금은 대체 어디에 쓰일까?”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가졌을 궁금증이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 개선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다. 본 기사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진행된 시설 개선 사업의 대표 사례를 소개한다.



잔디 전면 교체, 시설 보수

대한민국 축구학과 보유 대학 경기장 중 최고라는 평을 받아온 우리 대학이 인조 잔디 구장 및 풋살장을 개선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1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 A구장’, ‘인조잔디 B구장’의 각종 시설을 보수하고 잔디를 교체했다. 인조 잔디는 천연 잔디와 달리 물과 비료를 사용하는 사후 관리도 불필요해 친환경적이다. 또한, 표면이 균일하며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 우연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외부 창호 전체 교체

우리 대학 학생들의 휴식과 교류의 장인 학생회관의 창문 방풍·방수 기능을 강화했다. 2024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학생회관 외부 창호 전체를 교체했다. 학생회관 창문 중 일부에서 비가 샌다는 불편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진리관 4층 인문콘텐츠대학 구역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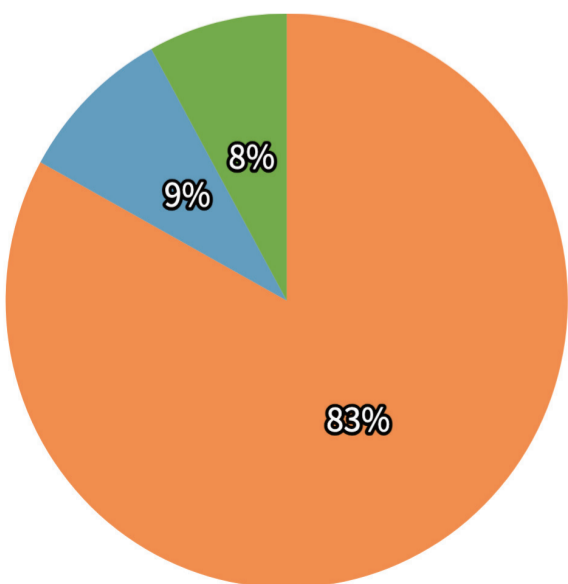
장기간의 대규모 공사를 시행해 진리관 4층 인문콘텐츠대학 구역을 ‘시너지랩’으로 재탄생시켰다. 준비 기간 포함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9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했다. ‘창작 및 제작 스튜디오’, ‘프로젝트룸’, ‘에트머스 사운드 스튜디오’, ‘네트워크 라운지’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된 ‘시너지랩’은 올해 신설된 웹툰만화콘텐츠학과의 주 강의실로 이용되고 있다.



학생회관 및 스타센터 냉난방기 교체

혹서기 및 혹한기의 쾌적한 학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냉·난방 시설을 개선했다. 2024년 2월 한 달간 약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학생회관 전체와 스타센터 1~3층 강의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했다.

재학생 만족도 설문 실시... 대체로 만족해



■ 만족 ■ 불만족 ■ 기타의견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흘간 재학생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개·보수 공사를 거친 전주대학교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참여 인원 중 83%가 시설 개선에 만족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진리관 뒤편 페인트가 벗겨져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 또한, 진리관 뒤편 계단은 날이 어둡거나, 비가 오면 계단 색이 구별되지 않아 위험하다. 이에 대해 계단 끝에 신주를 붙이거나, 계단 끝쪽만 색을 칠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 대학은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같이, 학생들의 불편을 적극 해결해 학습 여건을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설 개선 문의는 ‘인스타(<https://instar.jj.ac.kr/>)’의 ‘대학생활>시설관련>시설관련요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사 기간: 2024년 5월 8일~5월 10일, 총 3일간
 조사 대상: 교내 재학생
 조사 방법: 온라인(구글 폼 활용)

<사·자·성·어> 부모님께 사랑 전하는 성품채플 시즌3 성료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선교지원실에서는 '사·자·성·어'-사랑을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지 간다' 시즌 3을 진행하였다. <사·자·성·어>는 교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성품채플 수강생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자녀가 보낸 사연과 선물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프로젝트로 2023학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4박 5일간 우리 대학에서 출발해 봉동, 익산, 부안, 고창, 곡성, 광양을 지나 영암을 최종 목적지로 총 560km를 이동하였다. 이번 <사·자·성·어>에 참여한 선교지원실 최지웅 직원을 인터뷰하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이번 <사·자·성·어>는 학생들의 사연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자·성·어>를 진행하며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A. 이번 <사·자·성·어>는 지난 번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촬영한 학생들의 영상편지를 부모님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사랑이 담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을 보며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Q. <사·자·성·어>는 자전거로만 이동하는 프로젝트였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며 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A. 실제로 이번 <사·자·성·어>기간에 자전거를 타면서 수술했던 발목에 통증이 와서 중간에 많이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기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자·성·어>를 마무리 하며 느낀 감정이나 메시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편지, 소식들을 우리가 직접 전달하고 그들에게 행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평소에는 전하기 힘들어서 마음 속에 묻어놓았던 말들을 우리가 직접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 있다. 선교지원실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 중 건강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지령과 금지령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은 “하라”는 지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령, 딱 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지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령은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지켜 주시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금지령을 어기고 사망의 저주에 빠집니다. 이 저주의 핵심은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성향은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안심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 자체가 귀감이 아니라 민폐인 일들이 인생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기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아도 인생은 밝아지고 세상은 눈부실 정도로 좋아질 것입니다. 십계명 중 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덟 가지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최소 8할의 긍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를 도모하는 것보다 무엇을 금할 것이냐에 먼저 마음이 쓰입니다. 하라는 지령에 순응하여 복을 쫓기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금지령에 순응하여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더 긴급한 일입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는 365개에 해당하는 금지령이 있습니다. 금지령 훈련을 날마다 행하라는 뜻 같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베푸신 은혜로 60주년의 날을 선물로 받아 누립니다. 다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주대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성과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는 배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이런 소망 없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기쁨의 근원임을 드러내는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할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진호 특임교수
(선교봉사처 선교지원실)

기자수첩

야구를 좋아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강수아 기자
(xv0915@jj.ac.kr)

필자는 취미가 없어 지루한 나날을 보내다가 친구의 권유로 야구를 보게 됐다. 그때 홈런을 치고 세레머니를 하며 들어오는 타자를 봤고, 왠지 모를 해방감과 상쾌함을 느꼈다. 그 이후로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마다 야구를 보고,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로 나의 취미가 돼준 '야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3월 23일,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가 모든 구장 전석 매진을 알리며 화려하게 개막했다. 5월 5일 기준 총 251만 9,407명의 누적 관중을 보유한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는 전년 대비 30%의 관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야구 용어>

야구는 경기 용어를 알아야 백 퍼센트 이해하며 즐길 수 있다. 우선, 야구를 주관하는 KBO는 'Korea Baseball Organization'의 약자로, 한국야구위원회를 뜻하고, 투수의 공을 판정해 주는 ABS는 'Automatic Ball-strike System'의 약자로, '로봇 심판'이라 불리는 기계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스트라이크'는 투수가 던진 공이 ABS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볼'은 ABS 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포지션>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은 '투수', 홈플레이트 뒤에서 투수의 공을 잡는 사람을 '포수', 타자 박스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한다. 모든 타자는 공격이 끝나면 수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1루수'는 1루 베이스 지역을 지키는 코너 내야수로 큰 키가 필요하며, '2루수'는 2루 베이스 우측을 지키는 내야수로 기본적인 수비 자질이 필요하다. '3루수'는 3루 베이스 지역을 지키는 코너 내야수로 강한 어깨와 정확한 송구, 수비 센스가 필요하고, 2루 베이스 좌측을 지키는 내야수인 '유격수'는 전 포지션을 통틀어 최고의 수비 센스와 민첩성,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후방을 지키는 수비수인 '외야수'는 '좌익수'와 '중견수', '우익수'로 나뉜다. 이때, 수비를 하지 않고 타격만 하는 사람을 '지명타자'라고 한다.

<야구 개념과 경기 규칙>

야구는 9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총 9이닝(경기) 동안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 경기다. 선수 교체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교체된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매회 공격팀 타자 3명이 아웃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세 번 누적된 경우다. 스트라이크는 투수가 투구한 공이 스트라이크 구역으로 통과했을 때와 타자의 헛스윙, 타격 공이 파울 됐을 때 생긴다(단, 스트라이크 두 번이 누적돼 있으면 스트라이크 개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공을 잡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땅볼을 친 타자보다 1루 베이스를 밟은 수비수에게 공이 먼저 가는 경우다. 네 번째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두 번 받고 타자가 친 번트가 파울 된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타자가 진루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볼로 판정된 공이 네 번 누적될 때, 두 번째,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에 닿았을 때, 세 번째, 타자가 공을 친 후, 공보다 먼저 1루에 도달했을 때(2루 이상 진출 가능), 이를 반복해서 베이스에 진출한 주자가 한 바퀴를 돌아 홈베이스에 돌아오면 득점이 가능하다. 또한,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는 베이스에 있는 모든 주자가 홈베이스로 돌아와 진루했던 타자들만큼 득점된다.

마지막으로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베이스에서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태그됐을 때, 두 번째,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 수비수가 주자나 베이스를 태그했을 때, 세 번째, 수비수의 수비를 방해했을 때, 네 번째, 타구에 맞았을 때, 다섯 번째, 태그를 피하고자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에서 3피트(약 90cm) 이상 벗어났을 때 주자는 아웃된다.

<구단 종류 및 토너먼트 방식>

국내 야구 프로티에는 5월 21일 기준 승률 0.644의 KIA 타이거즈(연고지:광주), 승률 0.578의 삼성 라이온즈(연고지: 대구), 승률 0.556의 NC 다이노스(연고지: 창원), 승률 0.553의 두산 베어스(연고지: 서울), 승률 0.543의 LG 트윈스(연고지: 서울), 승률 0.543의 SSG 랜더스(연고지: 인천), 승률 0.422의 키움 히어로즈(연고지: 서울), 승률 0.413의 KT 위즈(연고지: 수원), 승률 0.378의 한화 이글스(연고지: 대전), 승률 0.357의 롯데 자이언츠(연고지: 부산) 총 10개의 구단이 있다.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의 정규리그가 끝나고 1위부터 5위까지 한국시리즈를 위한 토너먼트(포스트시즌)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팬들의 자존심이자 야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칭 '가을야구'라고 한다. 5위와 4위는 2선승제(4위 팀 1승 어드밴티지)인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진행하고,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승리팀은 또다시 3위 팀과 3선승제인 '준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 '준플레이오프'의 승리팀은 2위 팀과 3선승제인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며, 정규리그 1위 팀과 '플레이오프' 승리 팀이 4선승제인 한국시리즈를 진행해서 이긴 팀이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의 최종 우승팀이 된다.

위 순위는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폐막인 2024년도 10월까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리그가 막을 내릴 때까지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야구는 규칙이 간단한 것도, 쉬운 것도 아니다. 처음 야구를 접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수 있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이 성장하는 모습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서사를 써가는 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을 함께 할 친구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야구를 좋아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하며 응원을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조용히 경기에 집중하며 선수를 응원할 수도 있는 '야구'에 꼭 빠져보길 바란다.

가정의 달 기념, 독자투고

반려토끼, 복숭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문학창작학부에 재학중인 23학번 전지은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2020년 5월 31일에 가족이 된 토끼, 복숭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 토끼를 키워. 이름은 복숭아야'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흰토끼가 아니네?'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합니다. 이름은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아이스 에이지'에서 나오는 주인공 부부 딸 맘모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굳건해진 가족이 막 태어난 딸의 이름을 짓는 순간은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내게 좋은 이름이 있어, 복숭아. 동그랗고 복슬복슬한 털을 가졌으니까.' 제게 있어서 저희 집의 까만 토끼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흰 토끼가 아니어도 더없이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맘모스 가족과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힘들었던 시기를 거쳐 만났다는 점입니다. 복숭아는 모유 기권 보호소의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시스템에 '등록된 유실, 유기 동물 수만 따져도 하루 평균 258마리인 상황(2011~2020 기준)과 토끼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호소는 복숭아에게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예민한 초식동물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집에 데려온 당일에 배를 드러내고 굶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던 복숭아의 모습이 어제처럼 선합니다.

지금은 복숭아가 없는 일상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허공에 뜨는 얇고 가벼운 털과 쓰다듬어 달라며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 늦잠을 자는날이면 빈 밥통을 채워달라며 채근하는 몸짓 모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러니 학우 여러분, 동물을 반려하게 된다면 꼭 보호소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칼럼

테니스를 치며

전한덕 교수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나는 테니스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이제 겨우 2년차 테린이(테니스 어린이)일 뿐이다. 하지만 매년 테니스를 치러 갈 때면 마음속에서 큰 기쁨과 희열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 환희의 여운은 꽤 오래 지속된다. 이 느낌을 정확히 무어라 표현하긴 어렵다. 선하고 유쾌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운동하면서 나오는 도파민 호르몬, 성취감, 만족, 자아도취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테니스를 치며 부상도 가끔 발생한다. 손목이나 팔꿈치, 무릎 등 자주 사용하는 부위에서 부상이라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테니스를 치러 간다. 그것은 내가 테니스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소의 어려움과 악조건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취미를 지속하고 싶다면 그것은 곧 좋은 취미인 것이다. 이제 테니스는 나의 제일 소중한 취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는 테니스를 배우기 전에 독서나 음악, 미술, 헬스 등 주로 정적이고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취미들도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준다. 여기에 동적인 테니스가 더해지면서 취미로서의 내 삶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레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에서 주인공인 안드레이 공작은 전쟁에서 입은 큰 부상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젊음과 체력이 이토록 넘치게 느껴질 때 나는 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피에르의 말은 진리이고, 나도 지금 그것을 믿는다. 죽은 자를 묻는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야 하며, 생명이 있는 한 살아서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믿고 응원하며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훌륭한 취미는 때로는 거친 과도와 같이 요동치는 우리들의 지친 삶 속에서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숨구멍 역할을 해준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자신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취미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

좋은 취미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기자수첩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혔을까?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인터넷을 떠돌다가 '한글을 사랑하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에서 소설 미디어는 누리 소통 매체로, 브이로그(Vlog)는 영상 일기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 썼다. 개중에 슈뢰딩거의 고양이인 영조의 사도세자로 바뀌었다. 물론 '슈뢰딩거'는 고유명사이기에 글의 취지와 어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를 알기에 이러한 농담을 이해할 수 있다. 약 500년 역사의 조선사 중에서도 엄격한 내용으로 알려진 사도세자의 비극. 그러나 그 전말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도세자는 왜, 어떻게 왕세자의 신분으로 하필이면 뒤주에 갇혀야만 했을까?

영조 4년,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가 10세의 어린 나이에 죽고 41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으니, 그가 훗날 사도세자가 되는 이환이다. 중종실록에서 '세자의 나이가 반드시 여덟 살이 되어야 책봉했던 것은 시선, 문안, 입학의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기록을 보면 여덟 살 무렵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른 나이에 세자가 된 이환은 세 살부터 교육을 받았다. 두 살에 천자문을 배워 60자를 써내고 비단과 무명을 구분하며 사치와 검소의 차이를 판별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도세자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그림, 무예, 도교 등에 빠졌고 이에 실망한 영조는 사도세자의 행동에 과하게 간섭한다. 혜경궁 홍씨가 작성한 한중록에서 '심지어 백성이 춤고 배고프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도 꾸중하셨다. 세자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세자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이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셨다'라는 문장으로 보아 그 정도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일화로는 영조 32년,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랫동안 사도세자에게 걸음 하지 않았던 영조가 돌연 사도세자를 보러 낙선당으로 행차했다. 당시 사도세자는 울화병과 의대증(衣帶症)이라는 옷을 못 입는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심신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로 얼굴도 씻지 않고 옷차림 또한 단정치 않았는데, 영조는 이를 보고 사도세자가 술을 먹었다고 단정해 책망했다. 보모 최 상궁이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가 나는지 말아보십시오"라고 했으나 영조는 이를 듣지 않았다. 그날 낙선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영조는 이 또한 사도세자가 저질렀다고 생각해 나무랐다. 술을 즐겨 하지

않던 사도세자는 그날로 과음하기 시작했다. 이는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졌다. 보다 못한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사도세자를 죽여달라 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자결할 것을 명했다. 사약을 내려 사도세자가 죽는다면 사도세자가 죄인이라는 뜻이 되고, 이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왕세손인 정조 또한 죄인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도세자가 자결하려고 했으나 신하들이 칼을 빼앗고 날아오는 돌을 막아서서 그의 죽음을 막는다. 사도세자의 자결을 방관하면 왕실에 대한 불충이 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영조가 뒤주를 가져오라 명해 사도세자를 가뒀고 8일 만에 굶겨 죽였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의 상자인 뒤주에 갇혀 명을달리한 것이다.

임오화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부자 갈등, 생모의 부재, 노론과 소론의 대결 구도 등 한 가지 원인을 꼽기 어려운 다양한 역사학적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사건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조가 남긴 기록과 혜경궁 홍씨가 남긴 기록이 자신들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서술되어 객관적 설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왕세자가 되어 단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스트레스로 탈선해 아버지의 눈 밖에 나게 된 하나의 사건만을 정리한 해당 본문만을 보고는 임오화변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비단 과거의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제한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릴 때에도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글인지 확인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해보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고 어물쩍 넘어간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한 또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정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뭘까?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강수아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Jeonju University Museum Employees Donate '30 Million Won for Development Fund to School'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Museum staff held a ceremony today (30th) to deliver the development fund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chool's opening and to pra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The delivery ceremony took place on April 30(Tue) in the interview room on the 4th floor of the university's main building. It was attended by 10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Park Jin-bae, Museum Director Park Hyun-soo, Ok Chang-min, Park Eun-ji, Shin Joon-ho, Kang Eun-seo, and Ahn Jung-soo, a researcher of academic arts.

The museum staff who delivered the development fund were prepared to use the small contributions gathered from various fields of academic research, educational consignment, and exhibitions to develop schools and museums.

Park Hyun-soo, director of the museum, who made the donation, said,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chool's opening, I participated in the donation to contribute a littl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universities, and I hope it will be a cornerstone of Jeonju University for the next 100 years."

President Park Jin-bae expressed gratitude, saying,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and initiative in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despite challenging circumstances. We will use the donation in a meaningful way."

Meanwhile, the Jeonju University Museum is responsible for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such as academic research on the cultural heritage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seum visits, and humanities education.

article Jeonju University Museum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Job Plus Center, Holding JJ Job Mentoring Day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chool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Job Plus Center celebrates its 60th anniversary by establishing a network between graduate job incumbents and current students, and organizing JJ Job Mentoring Day (mentoring for new job incumbents) to promote future-oriented career exploration and design on May 1 (Wednesday).

Under the theme of "Time to Explore New Jobs," the event invited current mentors (6 jobs) from △ Safety/Environment △ Advanced Science/Technology △ Business Services to provide vivid information on new jobs and job sites to young people preparing for employment in related fields.

The job mentoring event consisted of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 company and job introduction by the incumbent mentors ▲ job preparation strategies ▲ Q&A sessions with senior professionals. It served as a platform for active communication, with over 100 students and local young people participating and exchanging questions about new jobs and information on the actual job preparation process.

Park Jae-hyun, a seni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who participated in the JJ Job Mentoring Day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chool, said, "The seniors provided firsthand information and know-how, which was extremely helpful in preparing for employment." He added,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broaden my career horizon and learn about new fields beyond my department-related career."

Shin Sook-kyu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Job Plus, said,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chool, we made efforts to recruit new job mentors who can provide insights into career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du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brought abou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plan to continue expanding programs to foster exploration of new jobs and raise awareness of future career changes, enabling students to learn about various career paths."

article Student employment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Jeonju Wansan Police Station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Human Rights Center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Jeonju Wansan Police Station (Chief Jeong Chang-ok) Women's Youth Division to prevent crimes such as stalking, sexu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e signing ceremony, which was held at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on April 29 (Monday), was attended by seven working-level officials from both organizations, including Lee Ho-joon, head of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and Kang Mi-kyung, Director of Women and Youth Division, Jeonju Wansan Police Station, to sign a work agreement and seek practical cooperation measures together.

Through this agreement, the two institutions agreed to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by utilizing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each institution, such as ▲ education to prevent stalking, dating violence, sexual violence 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universities, publicity ▲ linkage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Lee Ho-joon, head of the Human Rights Center, said of the agreement, "We will work together to make our university a safe campus where everyon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at a time when the role of the university's human rights center is important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university members and create a culture of gender equality."

Meanwhile, Jeonju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was selected as the only project in Jeollabuk-do to support the spread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23, and conducted various programs such as human rights culture festivals, human rights film festivals, and human rights field trips to promote human rights-friendly culture not only within universities but also in local communities.

In particular, this year, the first Jeolla Networking Growth Training was conduct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stomized face-to-fac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campaigns, and group counseling will be conduct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chool members.

article Human Rights Center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Jeonju University Opens 6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A grain of wheat falls at Jeonju University - The journey of 'Hanji': from tradition to modern times>

The Jeonju University Museum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on May 1 that it held a special exhibition called <A grain of wheat, Falling at Jeonju University - The Journey of Hanji: From Tradition to Modern>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in 2024.

This special exhibition was designed as a unique content unique to the university museum as an exhibition and experience with community members such as university members, local resi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with gratitude for the 60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In particular, under the common theme of "One grain of wheat, falling to Jeonju University," a Korean paper craft exhibition will be held in May with the department of Korean paper culture and industry, and in September, you can see Jeonju University's development over the past 60 years, focusing on university teacher data.

First, the Hanji Crafts Exhibition, which opened in May, consists of 25 artists, including professors, 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Hanji Culture Industry at Jeonju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Industry, to discover the beauty and potential of Hanji, which combines the past and present.

Park Hyun-soo, director of the museum, said, "This exhibition of Hanji crafts has been organized in connection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school with the purpose of being with members,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e university in line with the 24-year policy task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 think it is a good opportunity to promote the excellence and utility of Hanji through various Hanji crafts, and I want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by providing exhibition spaces to members and students in th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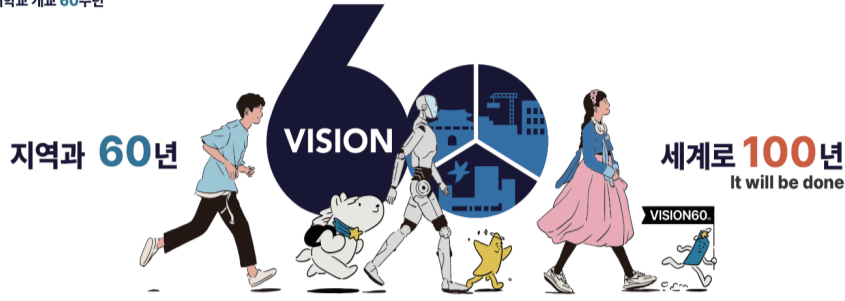
For more information on viewing this special exhibition and other details, contact Jeonju University's Academic Research Center (063-220-2158).

article Jeonju University Museum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与地区居民共欢的全州大学60周年校庆

全州大学向三所留学生支援机构颁发感谢牌

60th Anniversary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



3月份，以新生适应活动为始，全州大学正式开始了建校60周年纪念活动。可以在校园各处欣赏春花的“春花节”；在社交网络上上传在拍照区拍摄的照片后，通过抽签方式为当选者赠送奖品的“春花认证照活动”也紧随“春花节”之后而顺利进行。

“第25届全州国际电影节户外放映”从4月26日开始，到6月8日结束。它是为游客和当地居民提供的“全州电影观光”项目的一部分，第一个放映地点为全州大学。4月26日至27日在全州大学大操场进行的放映活动由开场表演、舞台问候、电影放映等环节构成。

此外，图书馆还主办了“图书馆开放节”。开放节以“无边界的文化之光，图书馆”为主题，从4月29日到5月2日，共进行了8个文化活动。第一个活动是为当地居民准备的图书馆之旅；第二个是以构筑与地方社区共同发展的基础关系为目标的天空花园读书营；第三个为加强数字能力的VR游戏战等。此次开放节的文化活动不仅学生可以参加，就连当地居民也都可以免费参加。此次活动的意义在于为60年以来一直支持全州大学的社区社会回馈图书馆资源，并以此实现“共享与开放”的价值。

5月2日，在JJ艺术厅举行了开学60周年纪念仪式、捐赠者铜板揭幕仪式、名誉博士授予仪式等主要活动，并在学生会馆前的环形交叉路口举行了鲜血运动、跆拳道示范表演、CCM音乐会等庆祝周活动。此外，在足球场还举行学生和教职员共同参加的校长杯足球比赛。

另外为了纪念建校60周年，博物馆在5月、6月和9月、10月分两次举办特别展览。第一学期将举行与地方社区合作的特别展览。这次展览将以“韩纸之旅”为主题，可以看到全州大学文化产业研究生院韩纸产业系毕业生（地方艺术家）和在校生制作的韩纸作品的计划展览。第二学期，还将准备一次展览。在这次展览中可以了解全州大学作为基督教名门私立学校，为了实现基督教精神而奋斗过来的60年历史。

此次建校60周年纪念活动是全州大学的所有师生和60年以来给予全州大学热情支持的当地居民共同欢庆的时间。通过这些活动，期待全州大学同社区社会一起向更好的未来迈出坚定的步伐。



全州大学（校长朴珍培）于5月10日在大学本部接见室向三个不遗余力地支持和协助外国留学生的三所文化交流机构颁发了感谢牌。

此次，全州大学选定了Goodwill中心（中心主任安雄贤，音译）、With U中心（中心主任边浩相，音译）和全州Global多文化中心（中心主任金泰英，音译）等三所机构。这些机构在大学附近设立了中心，并与大学建立了协作关系，挖掘了志愿者资源，积极帮助留学生在韩国的定居和文化适应等方面，为提高留学生在韩国留学生活的满意度做出了巨大贡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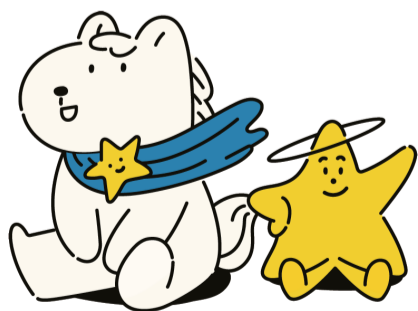
朴珍培校长在颁发感谢牌的仪式上表示：“多亏了社区的不断支持和协作，我们的留学生们才能更好地在韩国生活和进行文化交流。我深深感谢社区为支持留学生适应在韩国的生活所付出的努力和奉献。”

Goodwill中心主任安雄贤表示：“我们将不遗余力地支持来我们地区的外国留学生，无论他们的国籍和宗教如何，我们都会帮助他们度过成功的留学生活。我们将开发更多样的项目，与全州大学合作，为社区的发展做出贡献。”

全州大学正在与社区合作运营课后文化课程，为了让留学生们能够发展自己的特长并探索新的兴趣，正在运营包括韩语课程、艺术体育班、文化体验活动、健康咨询等13个文化活动项目。

독자투고 원고모집

8면 오피니언면에 실릴 독자투고 원고를 받습니다!



자격: 전주대학교 학부 재학생
주제: 여름방학, 종강과 관련한 사연 및 홍보 (행사, 생일 등)
분량: -공백 포함 500자 내외(A4용지 반 장)
-관련 사진 2장 첨부 필수
기간: 6월 12일(수), 18시까지(발간일: 6월 19일(수))
접수: 이메일(news@jj.ac.kr)
문의: 063-220-2442(미디어센터 대학신문사)

전주대학교 60주년 대학 사랑 발전 기금

당신의 빛나는 마음으로 쌓은 별빛,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됩니다.

앞으로의 빛나는 순간이 계속되도록
반짝이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그 바래지 않는 빛으로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이끌어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참여 방법

정기기부 : 매월 1구좌(1만 원)이상을 1년 이상 기부

- 1) 소액기부: 1구좌, 2구좌, 3구좌, 5구좌, 7구좌 등
- 2) 종액기부: 10구좌, 20구좌, 30구좌, 50구좌, 100구좌 등
- 3) 납부방식: 급여공제, CMS(자동이체)

일시기부 : 약정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
(약정 금액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

참여 대상

교내 구성원, 재학생, 동문, 지역주민 등

모금액 활용

전주대학교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실현,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

QR코드를 찍으면
대학 사랑 발전 기금
기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